

경주지역 고등학생의 약물남용 실태조사

오 정 옥

계림고등학교 양호교사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인은 급속도로 변화하는 문화적 충격 속에서 갈등하고 있다. 특히 19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서구문명의 영향으로 물질만능주의와 향락주의가 팽배하면서 기존의 가치체계가 위협받고 있는 커다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심리적 갈등과 가치체계의 혼란은 약물 남용이라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며 급속한 확산추세에 놓여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더구나 근래에 들어와 청소년의 음주, 흡연 및 약물남용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이유(호기심을 만족시키거나, 자신의 반항을 표현하거

나, 용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주위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등)에서 약물을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이들 약물이 약국, 문구점, 철물점, 화공약품 취급점에서 값싸고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더욱 문제시되고 있다.

청소년의 음주, 흡연 및 약물 남용이 비단 한국사회만의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성문제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음주, 흡연 및 약품을 남용하는 청소년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연령층 역시 낮아지고 있다는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소귀레, 1990).

청소년의 약물 남용이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이유는 일단 청소년이 약물을 남용하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중독에 이르게 되며 쉽게 여러 약물을 복합 사용하고 또한 대부분 성인이 되면 폐인

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홍경, 1990).

홈버그 박사의 청소년기 약물 남용이 미치는 장기적인 해독의 심각성에 대한 조사(1985)에 따르면 스웨덴의 경우 16세에 약물 남용을 시작한 청소년들을 11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5년 후에도 70~90%가 계속 약물을 남용하는 중독자였으며, 11년 후에는 그들의 대부분이 사회로부터 낙오되어 학교에서 쫓겨 나가거나 직장을 못 구한 상태였으며 상당수가 정신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다.

이처럼 청소년 약물 남용은 일단 확산되면 이를 억제, 감소시키기 곤란하고 이로 인한 치명적인 건강 훼손 및 치료 불능 상태로의 이행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도 커다란 손실이 초래된다. 따라서 청소년 약물 남용이 더 이상 확산되기 전에 학교 교육을 통한 체계적인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약물의 오용과 남용을 예방하고 그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비행 등의 사회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약물 사용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약물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현실성을 고려한

학교 보건 교육이 실시, 강화되어야 하며 교육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약물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이를 기초로 보건교육이 계획, 수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경주지역 고등학생들의 약물 남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이를 학교 보건교육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약물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학교 보건 교육의 강화 방안으로 활용돼 청소년의 약물 남용 예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연구 문제1) 경주지역 고등학생들의 약물 남용 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연구 문제2) 경주지역 고등학생들의 술, 담배, 수면제, 각성제, 신경안정제, 본드, 가스 사용 경험 유무와 사용횟수, 주위 친구들의 약물 남용 정도를 파악한다.

(연구 문제3) 경주지역 고등학생들의 술, 담배 남용여부와 사회, 경제적인 상황과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연구 문제4) 경주지역 고등학생들의

약물 남용 예방 교육 경험 및 관련 교육 요구는 어떠한 것인지를 파악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약물 남용의 정의 및 폐해

약물(drug)이란 생체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 전체를 포함하므로 약물 사용의 분야는 상당히 넓다. 약물은 의학적 목적을 가지고 사람에게 투여된다. 그러나 오늘날 약물이란 긍정적인 측면으로 의학에서 약물 본래의 목적을 갖는 것과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약물 남용으로 인한 자기파괴나 사회파괴의 의미를 갖고 있다.

합병증으로는 의학적 합병증과 정신과적 합병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의학적으로는 약물로 인해 평소의 신경전도물질 수급조절능력에 장애가 생겨 외부의 세균 및 여러 병원균과 싸우는 면역 기능의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또 약물을 호흡기를 통해 사용 시에는 축농증, 코뼈가 뚫어짐, 만성 기관지염, 만성 폐색성 호흡기 질환, 폐렴, 폐결핵 등이 올 수 있으며, 주사기를 사용 시에는 간염이나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걸릴 수 있으며,

이외에도 폐염, 정맥염, 피부염, 위염, 위궤양, 간경화 당뇨병, 고혈압, 암 등이 올 수 있다.

정신과적으로는 약 기운이 있는 동안에는 기분이 좋으나 약 기운이 떨어지면 우울증이 생기며, 자살을 생각하게 되고, 불안, 발작이 오게 되며, 정신분열증을 일으킬 수 있다(보건사회부, 1993).

2. 남용 약물의 종류 및 남용 실태

향정신적 약물은 중추신경 흥분제(CNS stimulants)와 중추신경 억제제(CNS depressants)로 구분되며, 흥분제에는 필로폰, 코카인, 카페인 등이 있고, 억제제에는 아편, 몰핀, 코데인과 같은 마약과 술, 수면제, 진정제 등이 있다.

그리고 어떤 일련의 약물들은 흥분성과 억제성을 동시에 갖는데 이런 약물들을 환각제(hallucinogens)라고 하고, LSD, 메스카린, 실로신, 대마(THC)등이 환각제에 속한다(주왕기, 1990).

한국청소년의 약물남용 실태와 예방대책(주왕기, 1990)에 따르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약물 남용과 비행 경험 실태 조사에서 음주 68.2%, 흡연 37.1%, 대마 2.2%, 코카인 1.1%, 각성제 17%, 필로

폰 0.5%, 마약 0.5%, 환각제 1.5%, 본드 3.2%, 신경안정제 2.3%, 수면제 3.8%, 해열진통제 33.6%, 진해제 1.1%, 항히스타민제 1.3%로 나타났으며, 약물 남용자중 비행 경험자가 많았으며, 고3 여학생의 음주, 흡연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부산과 진주 지역의 일부 고등학교 학생의 약물 사용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에서는 음주 87.6%, 흡연 26.5%, 대마 1.3%, 유기용매제제 3.3%로 나타났다.

부산시 청소년 상담실이 1994년 부산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약물 및 환각제 사용 경험자 설문 조사」에서는 7.1%가 약물이나 환각제 사용 경험이 있다고 했으며, 본드 63.6%, 부탄가스 10.1%, 각성제 복용 9.3%, 마약류 2.3%였다(국제신문, 1994.12).

3. 약물 남용 예방교육의 현황

약물 오·남용 문제는 일단 한 번 발생하면 평생의 문제로 남으며 치료의 성공률도 무척 낮다. 따라서 약물 문제가 애초부터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며 제일 필요하고 교육에의 접근도가 가장 수월한 것이 학교차원에서 실시하는

예방교육인데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체계화된 학교 예방교육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보사부, 1993).

약물 남용 예방 교육은 약물 남용 예방 대책 중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고 건강교육은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한 학교 보건교육이 실시될 때 더욱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약물교육에 대한 일반 교사의 인식, 비용 및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에서 Raymond 등(1988)은 학교 교육에서 조직화된 약물 교육 시행에 참여해 장기간에 걸쳐 실시한 교사 집단은 약물 교육을 위해서 제공된 시간에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고 계속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에 단기간에 걸쳐 실시한 교사 집단은 약물 교육을 위해서 제공된 시간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심지어는 핵심과목을 가르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였다.

이와 같이 약물 교육은 단기간의 교육으로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교육과 이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약물 교육의 효과를 연구한 Pirastu(1989)는 학교에서의 약물교육은 초등교육 과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중등교육 과정에서도 체계적인 약물 교육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중·고등학생들은 약물의 이름을 알고 있는 비율은 높으나 약물을 타당한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약물의 처음 사용 시기가 중학시절이 많았으며 호기심에서 사용한 율이 높았기 때문에 약물남용의 부작용과 의존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보건교육 및 홍보가 시급하다(조연숙, 1990).

4 학교 보건교육의 현황

학교보건교육과정은 교육목적(교육법 제93조)과 교육목표(교육법 제94조)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부가 고시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1992-11호)에 의거한 교육과정 가운데 체육과 교과활동중 보건편에 근거하여 설정하였다.

내용은 교육과정으로 편성된 목표, 내용, 방법, 평가에서 보건관련 내용을 선정하고 지역사회의 특수성, 학교의 실정, 학생의 특성, 교원 및 학부모의 요구, 교육 여건등을 반영하며 학습경험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수준에 적합하도록 내용을 선정하였다.

학교보건 교육과정(school health education curriculum)은 학생이 자기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학생에게 건강 관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심동적 영역의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보건교육과정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health service), 보건수업(health instruction), 건강한 환경(healthful living condition), 보건관련 과목(health related subjects)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건강관리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가 속한 상황에서 삶을 영위함에 필요한 건강상의 준비를 갖추도록 돕는 데에 그 방향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보건교과 수업은 학교보건 교육과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새로운 지식, 태도, 행위를 획득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양한 보건교육의 경험을 건강한 행동 양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건강한 환경은 위생적인 환경, 학교 급식 프로그램, 교사 및 학생과의 인간관계 등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날마다 경험하는 것을 총괄하는 것으로 이러한 경험은 매우 중요한 학습 경험이다.

마지막으로 관련 과목은 타 교과에서 보건과 관련된 수업, 통합된 프로그램, 유연적인 교육 등을 통하여 수행될 수 있다. 통합된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보건 교육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학생들의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과 관련, 양호교사들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한데 비해 우리 나라에는 1999년 4월 1일 기준 현재 전국의 국공립, 사립의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보건 계획을 수립하고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양호교사가 6,208명에 이르고 있으나 각 시도 교육청에 보건교육 전문직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체계적인 보건교육 장학지도가 어려운 상황이다(교육신보, 1999.12).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보건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포함 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둘째, 현행 양호교사를 보건교사로 전환시켜 보건교육의 질적 향상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하며

셋째, 양호교사를 전문직임용(보건교육 장학사)으로 승진기회를 부여하여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Ⅲ. 조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경주지역 고등학생들의 약물 남용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경험적 조사연구로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발행한 1999년도 학교별 통계열람에 의한 경주시 소재 17개 고등학교(인문 남 8개교, 인문 여 4개교, 실업 남 3개교, 실업 여 2개교) 중에서 표집의 대표성을 가지기 위하여 학교 종류와 성별을 고려하였으며, 각급 학교별로 2학년 1학급씩을 선정하여 인문, 실업별과 남, 여 비율에 따라 설문대상 학생수를 조정하였다.

그리하여 인문계 6개교(남 4개교, 여 2개교), 실업계 5개교(남 3개교, 여 2개교) 총 11개교 405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결과 405장의 설문자료가 회수되어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 조사 도구

본 조사의 도구는 1996년 한국청소년학회 주관으로 김소야자에 의해 이루어

진 청소년 약물 남용 실태 조사 설문지를 본 연구자가 고등학생 수준에 맞도록 내용 및 문장을 수정, 보완한 설문지를 작성한 후 간호학 교수와 일선 양호교사의 자문을 받아 설문 내용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인문계 1개교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발견된 문제점을 다시 2차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일반적 특성

1) 대상자 개관

인문계의 경우 남학생 25.2%(102명), 여학생 24.7%(100명), 실업계의 경우 남학생 25.1%(102명), 여학생 25.0%(101명)로 인문계 49.9%(202명), 실업계 50.1%(203명)를 차지하였다.

대상자들의 부모님의 현재 상태는 응답자들의 대부분인 87.7%가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10%를 넘었다.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 47.9%, 중졸 17.6%, 초등졸 15.9% 순으로 고졸이 가장 많았고,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 46.7%,

중졸 28.4%, 초등졸 16.8% 순으로 평균 학력이 거의 비슷했으나 아버지의 중졸(17.6%)보다 어머니의 중졸(28.4%)학력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특징적이었다.

가정의 경제수준은 응답자의 대부분인 71.5%가 자신의 가정의 경제수준을 '보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고민으로는 학교성적이 60.4%로 가장 많아 학생들이 학교성적으로 고민하고 있었고, 이성문제를 고민거리로 가지고 있다는 학생이 33.6%로 두 번째로 많았다. 그 다음으로 외모 29.6%, 건강 21.5%, 부모님과의 관계 18.8% 순으로 조사 되었다.

학교생활에 있어서는 39.7%가 흥미가 없다고 39.7%의 응답으로 가장 많았으며 즐겁다가 28.9%, 흥미가 생기고 있다 24.3%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성적은 중간 57.1%, 낮은편 29.5%, 높은편 13.4%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적문제로 적잖이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한 가정분위기는 냉담한 편인가라는 질문에 61.6%가 그렇다라고 응답해 가정분위기에 다소 냉소적인 입장을 나타냈으며 가정생활에 대한 불만도에 있어서는 조금 있다 41.9%, 보통이다 35.7%로

응답해 가정생활에 대한 불만의 정도가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부모님이 자녀를 엄하게 다스린다는 데 대해 보통이다 54.3%, 별로 그렇지 않다 28.1%로 나타나 가정생활에 대한 불만도 항목과 대조를 이루었다.

2) 약물 남용 관련 특성

약물 사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97명중 질병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약물의 종류를 보면 술이 41.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담배 19.5%, 각성제 5.9%, 수면제 4.0%, 흡입제 1.0%, 신경안정제 0.5%로 나타났다.

또한 약물을 사용한 동기는(복수응답) 호기심이 45.2%로 가장 많았으며 특이한 점은 학교성적이나 외로움이 각각 3.7%, 2.7%로 위의 약물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비교적 절실한 이유로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분위기 때문에 사용한다는 경우가 22.9%나 돼 이성적 판단이 부족한 청소년기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V. 결론

본 조사는 경주시 소재 고등학생의 약

물남용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청소년의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나아가 학교 보건교육강화 방안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조사 대상은 경주시 소재 11개 고등학교(인문계 남 4개교, 여 2개교, 실업계 남 3개교, 여 2개교)의 2학년 학생 405명으로 하였으며, 김소야자의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 조사 설문지를 참고로 제작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고등학생들의 약물남용 실태와 약물남용 예방교육 요구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약물남용 관련 특성을 보면 대상자들의 부모님의 현재 상태는 대부분인 87.7%가 함께 살고 있으며 부모님의 학력은 고졸이 가장 많았고 특징적인 것은 아버지의 중졸(17.6%)보다 어머니의 중졸(28.4%) 학력이 월등히 높았으며 경제수준은 대부분인 71.5%가 '보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고민으로는 학교 성적이 60.4%로 많고 그 다음으로 이성문제가 33.6% 다음으로 외모 29.6%, 건강 21.5%, 부모님과 의 관계 18.8%순으로 조사되었다.

2. 약물사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97명중에서 술이 41.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담배 19.5%, 각성제 5.9%, 수면

제 4.0%, 흡입제 1.0%, 신경안정제 0.5%로 나타났으며 사용동기는 호기심이 45.2%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 학교성적 3.7%, 외로움 2.7%로 위의 약물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비교적 절실한 이유로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분위기 때문에 사용한다는 경우가 22.9%나 돼 이성적 판단이 부족한 청소년기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3. “각 항목(계열, 성별, 부모의 교육정도 등등)이 고등학생들의 술을 마셔본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가설을 카이제곱검증법으로 검증해 보았다. 이 경우 고등학생들의 술마시는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유의 수준 5%로 검증할 때 ‘학교 생활의 만족도’, ‘성적’, ‘가정 분위기’, ‘가정 생활의 불만도’가 있었다.

그 중에서 학교 생활의 만족도 ($P=0.001$), 성적 ($P=0.02$)만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이한 사항은 ‘약물남용에 관한 교육’이 학생들의 술을 마셔본 비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담배에서는 각 항목(계열, 성별, 부모의 교육정도 등등)이 ‘고등학생들의 담배를 피워본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가설을 카이제곱검증법으로

검정해 보았다. 이 경우 고등학생들의 담배를 피워본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유의수준 5%로 검증할 때 성별 ($P=0.001$), 부모 상태($P=0.001$), 학교 성적($P=0.002$), 가정 분위기($P=0.001$), 가정 생활의 만족도($P=0.001$)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 경주지역 고등학생들의 약물남용 예방교육 경험 및 관련교육 요구는 ‘약물남용에 관한 교육을 학교에서 받아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학생은 응답자 405명중 49.1%(199명)이고, ‘아니다’라고 답한 학생은 49.9%(202명)이었다.

약물남용 필요성에 대해 77.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보건관련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도 54.9%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와 학교에서의 약물남용 예방보건교육이 실시되기를 원했다.

고등학생들은 학교생활 만족여부와 학교성적 가정분위기에 따라 약물을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나친 입시위주의 학교 교육을 지양하고, 술과 담배 같은 약물을 청소년들이 쉽게 구입할 수 없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고등학생들의 약물남용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약물남용 예방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전담 교사를 배치, 학교 보건교육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조사의 결과와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결과 고등학생들의 약물복용 동기는 호기심이 가장 큰 만큼 약물 사용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 사회가 연계하여 지속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해 나가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안 연구가 이루어져야겠다.

둘째, 약물 오·남용 실태에 대한 조사는 많이 있으나 이의 해결 방안연구는 별로 없는 실정이므로 약물 오·남용에 대한 예방교육 강화와 학교 보건교육 강화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술은 학교생활에 만족을 못할수록, 가정생활에 불만정도가 높을수록, 성적이 낮을수록, 그리고 가정분위기가 냉담할수록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더 많이 음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학교에서는 취미활동을 통해서 즐거운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정에서는 부모와의 대화를 통하여 부드러운 가정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사료된다.

넷째, 담배는 살펴본 결과 실업계 남자학생이 인문계 학생에 비해 월등히 많이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 더 많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실업계 남자학생의 높은 흡연률에 대한 원인조사가 더 필요하고,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청소년에게는 가정을 대신할 수 있는 지역사회 대체자원의 이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약물남용에 대한 지식을 제공해 주는 정규적인 약물남용 예방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 제공자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양호교사의 역할 강화가 절실하게 요구됨과 동시에 독립된 보건교과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참 고 문 헌

고흥경(1990). 서울시내 일부 청소년의

- 약물남용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고등학교 3학년 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구은영(1995). 약물남용 청소년의 자아 정체감 연구: 보호관찰 대상자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길은미(1994). 일부 남자고등학교생들의 약물남용에 관한 지식 및 태도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기백석(1990). 청소년의 약물 오·남용, 학교보건학회지.
- 김경빈(1990). 봄에 지는 낙엽들-약물중독 현장보고서.
- 김경빈(1998). 약물 오남용의 실태와 예방지도, 대한가족계획협회.
- 김소야자, 현명선, 성경미, 공성숙(1993).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대한간호학회지, 23(3) 487-503.
- 김숙경(1992). 청소년의 약물사용과 비행 실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희(1995). 약물남용 비행 청소년의 성격특성.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화체육부(1993).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지도서.
- 박중규(1990). 약물사용 청소년의 심리 및 사회적 특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숙(1991). 고등학교 학생들의 약물사용에 대한 지식정도와 교육요구도에 대한 조사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구성(1997). 청소년 약물남용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구성(1997). 청소년 약물남용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사회부(1993). 학교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교재.
- 송경화(1997).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학교사회사업의 역할과 방향모색. 경북대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영애(1988). 서울시내 남녀 고교생의 흡연에 관한 태도 조사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종국(1992). 약물남용 청소년의 성격에 관한 연구 - MIMPI 검사결과 중

- 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이가연(1997). 중학생의 약물남용 실태 및 관련요인. 경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계연(1994). 청소년 약물남용의 실태 및 대책. 청주대학교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숙(1997). 대구시내 고등학생의 약물남용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래홍(1997). 약물남용에 대한 석사학위논문의 내용분석.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희숙(1991). 청소년들의 약물사용 실태에 대한 문헌적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희숙(1994). 청소년 흡연, 음주 및 약물남용의 실태와 요인 - 서울지역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천경애(1994). 서울 시내 일부 국민학생들의 약물 사용에 대한 지식 및 태도 조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천주의 성 요한 알코올 상담 치료센터 (1993). 회복에 이르는 길. 체육청소년부(1991). 청소년약물남용 실태조사.
- 하창순(1998). 약물남용 비행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진로 성숙도간의 관계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경희(1997). 경기도 공업고등학교 남학생의 약물남용 및 흡연실태와 식사행동조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국학교보건협회(1997). 청소년의 약물남용 실태현황과 그 문제점. 학교보건.
- 홍정임(1996). 약물복용 가능 아동의 가정환경 특성에 관한 분석적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